

場 所 文化財管理局

出席人員 金庠基 李敏載 金斗鍾 金元龍 金重業 任哲宰 石宙善 朴萬奎 崔基哲

鄭文基 孫致武 文化財管理局長 秦文化財課長

缺席人員 金載元 李弘植 黃壽永 李相佰 李惠求 金千興

同總會에서는 一九六二年度業績報告에 이어 다음事項을 附議 可決하였다.

一、一九六三年度 文化財補修費編成案 原案 可決

二、指定文化財實態調査 및 指定申請 文化財調査計劃書案 各分科에 委任

三、各分科에 常任委員을 둘 것

四、史蹟 및 名勝指定 既히 指定되었던 것 中에서 「平壤 牧丹臺」만 保留하고 三點

은 指定키로 可決

五、南大門丹青文樣檢討

① 色調는 強烈한 色을 避하고 古色을 살릴 것

② 顔料는 褪色하지 않는 高級品을 使用할 것

六、石窟庵復原設計圖檢討

① 後面 岩石을 除去하고 地面에서부터 二重 楹을 構築할 것

② 排水口는 窟內平面보다 낮춰서 外部로 뿜을 것

③ 換氣孔은 楹 頂上에서 後側에 設置하여 前面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

④ 前室 木部構造는 模型을 製作한後 다시 討議한 것

七、古墳盜掘品鑑定——最近 大邱에서 立件되어 있는 古墳盜掘犯人이 盜掘한 副

葬品을 鑑定하기 爲하여 金元龍 委員과 秦 文化財課長을 派遣하기로 하였다.

◎ 公州 新豐里 三層石塔에서 舍利藏置 出現

過般 文化財管理局에서 補修를 許可한 바 있는 公州郡 新豐面 所在 三層石塔은 修理途中 舍利藏置가 發見되었으나 洞民이 破壞한 것을 事後에 公州博物館長 金永培氏가 그 一部를 收拾하였다 한다. 同 工事에는 監督의 立會가 없었다 하는 데 同事件을 調査하기 爲하여 秦文化財課長이 派遣되었다.

印度 通信 (一)「Patna」에서

黃 壽 永

第四卷 第二號 通卷三十一號

正初에 「뉴·델히」를 出發하여 三月末에 이르는 旅程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計劃은 中央考古局長인 K.D. Dval가 손수 作成한 것이며 다만 나의 希望

에 따라 期間을 短縮하였을 뿐인데 四月에 들어서부터의 日程을 엄려하였기 때

문입니다. 二月中旬까지 東·北印 그 以後가 中·西·南印으로 區分되었으며 이

사이에 「뉴·델히」에서의 三日의 休暇를 넣었습니다. 이 같은 長期의 旅行은 처음

이므로 머나가에 앞서 數日間 準備에 바빴습니다.

一月六日 아침 「뉴·델히」를 떠난 急行車로 翌日 午後七時 「칼카타」에 도착하

였습니다. 四人一室의 旅客이 차례로 내리니 Asansol부터는 獨房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夕陽을 달리는 車中에서 慧超의 글을 보면서 밖의 風景이 옛과 다

름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칼카타」는 十二月二十五日 印度着陸의 땅

이기도 합니다. 三日間 이곳 三個博物館을 찾았는데 그 中에서도 Indian Muse

um에서 많은 時間을 보냈습니다. 中共侵入에 따르는 非常事態로서 包裝作業中

임에도 불구하고 彫刻三室을 보여준 것은 대단한 厚意였습니다. Bharhut의 塔

門과 石欄 「잔다라」의 塔像 마투라期以後의 作品들이 注目되었으며 「西藏」 「네

팔」의 繡幡과 金銅像도 볼 수 있었습니다.

一月十日 밤車로 떠나 翌朝 東海岸인 Orissa州의 Dhubaneswer에 당도하였습

니다. 이곳은 七—十二世紀의 힌두敎 石造寺院으로서 有名하며 郊外 二—三十里

에 數日 머무르면서 고루 찾았습니다. 또 一月十三日에는 이곳서 百六十里 떨어진

진 Konarak의 Sun God Temple을 보았는데 規模도 크고 彫刻도 優秀하였습니

다. 그러나 一般버스便으로 往復하였기에 現場에서 約二時間밖의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곳 Orissa에서와 Ratnagiri의 佛敎寺院發掘지가

들어 있었으나 交通不便으로 斷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石造寺院은 十餘곳을

찾아 그 樣式과 彫飾의 一端을 볼 수 있었던 것은 兩石窟과 더불어 收獲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一月十五日 밤車로 「칼카타」에 돌아와 하루의 休日を 보내고 다

시 밤車便으로 Gaya로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一月十六日—一月十九日은 釋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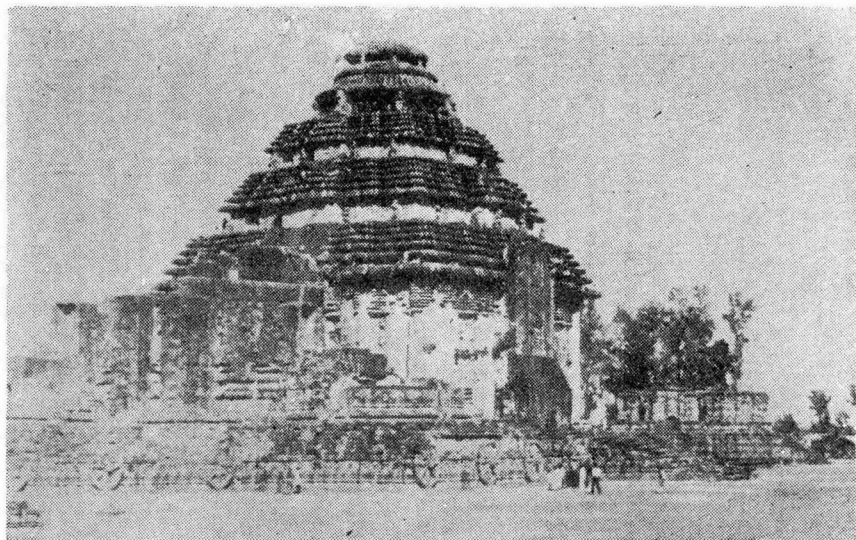
正覺의 聖地인 Budh-Gaya에 留宿하면서 寺院의 初期石欄과 金剛座를 조사할 수

있었으며 西藏僧을 비롯하여 많은 巡禮者의 禮拜도 볼 수 있었습니다.菩提樹下

의 金剛座는 그 上臺石만이 紀元前一世紀頃의 作品으로 推定되고 있는 바 數次의

重修로서 原位置에서 移動되었으며 高塔形精舍 또한 많이 變貌되어 古態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곳 滯在中 一日(一月十八日)은 百里西北方인 Barabar石窟을 찾



Konark의 Sun God Temple 現地에서 筆者 撮影

아닐 것입니다. 밤늦게 宿舎에 돌아와 無事하였음을 그곳 博物館長과 多幸으로 여겼는데 이 石窟의 調査는 成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一月二十日 便으로 北上하여 Raipur를 向하였으나 宿舎를 設하여 다시 十里 떨어진 Nalandara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有名한 大伽藍址요 同時에 印度最古의 大學址라고 부르는 곳으로서 前世紀以來의 殿塔發掘址가 그대로 保存 施設이 되어 있으며 그 規模는 굉장하였읍니다. 數日間 朝夕으로 出入하면서 옛날의 盛觀을 짐작하였으며 이곳에 留學한 우리의 先人들을 追慕하기도 하였읍

았는데 그곳 兩處計七窟은 印度最古의 造成으로서 内部의 彫飾은 없으나 全面이 水晶과 같이 磨研되어서 摩訶 期의 特色을 지니고 있었읍니다. 그 構造는 各異하나 그 代表가 된 Jonas Rishi窟은 圓形奧室과 長方形前室이 連結되어 있어 우리의 石窟庵平面과도 같읍니다. 銘文에 의하여 Asoka王代가 틀림없다하니 紀元前三世紀의 遺構입니다. 이곳에는 택시로 往復하였는데 旅行社職員이 同行이 되어 地方民의 疑惑을 免할 수 있었읍니다. 山中에 깊이 들어가서 사 진적이고 記錄하고 하니 그들의 警戒도 無理는

니다. 모든 佛殿이 東向하였고 主尊佛이 降魔印을 보이고 있는 것은 新羅의 遺例를 생각해 함도 있었읍니다. 七次에 걸쳐 重修된 大塔(Temple Site No.3)에도 올라서 全景을 살피기도 하였고 隣在하는 佛敎研究所를 찾아서 東南亞各國과 日本의 敎授 留學生과 一夕을 즐기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留學生을 期待한다는 말도 있었읍니다. 하루(二月二十三日)는 다시 Raipur를 찾아 옛王舍城內外에 숨어있는 많은 佛蹟을 찾았읍니다. 靈鷲山에도 올랐으며 竹林精舍址도 보았고 王舍城址의 發掘現場도 찾아서 說明을 들을 수 있었읍니다. 이곳 「나란다」에서는 博物館長 謝氏의 厚意로서 無事하였고 宿舎建物도 훌륭하였는데 留宿客은 오직 나뿐이어서 數日間 큰 짐을 혼자 차지 하였는 바 言語는 不通이고 食事は 밥과 鷄卵 그리고 持參한 고추장편이었읍니다. 一月二十四日 汽車便으로 「비하루」州의 首都이며 阿育王의 古都인 Patna에 당도하였읍니다. 十日만의 農村地帶를 벗어나 都會地에 이르니 마을과 몸이 平安함을 느끼겠읍니다. (一九六三·一·二五)

〈追信〉

二月十五日 Nagargh 汽車中에서

午後三時 四十分 Gorakhpur를 떠나 Nagargh 向하는 車中입니다. 이곳은 北印 國境의 附近입니다. 昨日는 Kusinagara에서 一泊하였는데 이곳은 釋迦入滅의 땅입니다. 午後 늦게 Bus로 도착하여 塔殿에 參拜하고 今朝는 約五里 떨어진 茶毘處의 塔을 찾았읍니다. 佛塔이 이곳에서 비롯하였으며 四大聖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慧超가 찾아온 곳이며 그의 旅行記 卷頭에 나타는 곳이기도 합니다. 佛塔에 關心을 모으고 있으면서 한번 찾고 싶었던 곳입니다. 一月六日 「뉴·델리」를 떠나 一個月이 넘었읍니다. 그사이 어느덧 지났던지 땅에 도익숙하여지고 旅行에도 익숙하여진 것 같습니다. 시골에 들어오면 더욱이 中國人으로 보는지 不快한 일도 있었으나 그것도 지금은 익숙하여졌습니다. 第一次 旅行이 차차 終末에 가까워오는 듯 하는데 豫定에 없던 곳을 가고 싶어 다시北上하고 있어온데 來日(二月六日)은 釋迦誕生의 땅인 「루비니」에 갈려고 합니다. 이곳은 國境 넘어 「네팔」 땅이었는데 手續없이 갈 수 있다 하오니 이곳까지 왔다가 아니 찾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곳을 찾으면 釋迦의 四大聖地는 두루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四大聖地以外에 四大聖地가 있어 合計八個處이었는데 그곳에 모두 塔이 있읍니다. 다른 四個處中 二個處는 이미 찾았고 두 곳이 남아 그것도 찾아갈까 합니다. 慧超가 八塔難誠見이라 하였는데 오늘날은 交通이 좋아

서 몇千里의 길을 하루에 달려가니 옛 苦難에 比할 바 아님니다. 앞으로 一週日 이면 「유·텔」에 돌아옵니다. 그곳서 數日 쉬게 될 것입니다. 二月 一日에는 「사 루나-트」에 와서 初轉法輪의 땅과 그곳 博物館을 보았습니다. 印度彫刻中 優品 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實物을 對하오니 理解가 빠른 것 같습니다. 佛教美術이 宗教美術인 만큼 그 發達이 佛蹟과 깊은 關係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곳오니 佛寺는 東向이 原則이었고 如來像은 거의 釋迦이온데 降魔觸地印이 殆半 이었습니다. 우리 佛教의 方向과 新羅佛像의 手印은 確實히 이 곳과 關聯이 있음 을 깨달았습니다. 細部手法에 있어서도 「간다라」뿐 아니라 紀元後四一六世紀 에 있어서의 北部印度에 있어서 彫刻活動이 注目되어야 할 줄을 느꼈습니다. 이 곳서 博物館은 특히 仔細히 보고 있어오며 측장館長들과 이야기하는 수도 있어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地方의 館長은 모두가 專門家는 아닙니다. 〈追記〉 Nagarah의 내리는 밤七時가 되었아온데 驛頭에서 調査를 받고 비자가 없으면 「룬비니」의 곳간다가에 다시 車를 타고 밤 一〇時 넘어 Palampar의 내리 서 二倍의 車값을 물고 符合室베치에서 하루밤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祇園精舍 址와 舍衛城址를 보고 저녁車로 이 곳 州首都인 Lucknow로 가겠습니다. 二月 六日朝 「파루람」驛에서」

雙峰寺通信(完)

申 榮 勳

三、基壇部の 狀態

長臺石部分과 前面階段의 一部分이 露出되어 있었다. 長臺石들은 大部分 攪亂 되고 破損되었으니 數片의 後補物이 混在되어 無秩序하였다.

基壇周圍에 묻힌 흙을 파보니 前面 石階의 全部와 基壇의 全貌가 들어났다. 이것을 平面으로 보면 四隅의 角礎石을 起點으로 하여 方形의 構面을 가졌는데 前面에만 階段을 設置하였고 立面으로 보면 角礎石下의 넓직한 隆起陽刻線條가 있는 基石을 起點으로 上臺·壁石·下臺石이 秩序整然하게 築石되어 있다. 其中 南, 東兩側面의 左右端에는 混亂이 있었으나 大部分은 狀態良好하다. 階段 단은 층제들이 모두 아래로 처져 있었고 그 중 하나는 缺失되었다.

基壇上面 建物の 周圍는 진흙과 沙土가 섞인 흙으로 덮여 있다.

四、復原의 方案 及 施工

A、基壇：缺失長臺石을 補充하고 上面에 方塊을 깔고 石階를 整理하고 角礎石도 四個가 같은 것을 蒐集하여 定礎하였다. 基壇周圍는 넓적이 파헤쳐 本來의 그라운드·라인을 들어내었고 流入을 防止하기 위하여 溝를 쌓기로 알 으막한 측대를 댔습니다. 그 아래로 排水溝를 設備하여 流水의 便宜를 꾀하였다.

B、木部：前記한 攪亂部分을 모두 整理하고 後補物과 腐損品一切는 新規材 로 交替하였고 心柱와 春舌는 堅固히 結索하고 補強措置하였다. 積木은 交替된 舊材를 더하여 可能한限 最強을 企圖하였다. 補充材에는 補修年月日을 墨書하였다. 丹青은 模寫採取하였고 補充材에는 古色칠을 하여 周圍와의 同 和를 꾀하였다.

C、屋蓋：蓋板은 大部分 交替하였고 散子는 竹材로 새로우고 積心은 充分히 補填하여 흙을 얇게 깔아 荷重을 가볍게 하였다. 瓦는 前과 同一하게 施工.

基本方案을 以上과 같이 하여 그대로 施工하였는데 三層屋蓋의 架構部分에 對 하여는 論議가 있었다. 解體調査하니 틀림없이 지붕이 사모였다는 心證을 얻어 現像대로나 原形을 찾아 復原할 것이냐의 問題였는데 現狀대로 復原하자는 論이 優勢하였다. 사모지붕이 原形이지만 其以上의 結構——即 相輪部의 形狀을 모르는 以上 什불리 손낼 수 없다는 理由였다. 層前面의 開放部의 後補物은 古格으로 復原하였다.

五、結語

基壇掘土時 前方에서 礎石이 發見되었다. 門址였다고 하는데 全貌를 把握할 수 없는 이상 한부로 發掘하지 못하게 하고 後日 本格的인 調査에 期待하도록 하였다. 이 門의 部材는 大雄殿과 極樂殿·冥府殿(現亡)等의 補修時 援用되었다고 한다. 其他의 遺構와 事蹟記에 대하여도 言及하고 싶었고 事蹟記와 上樑文과의 比較考案도 試圖하고 싶었으나 紙面關係도 있고 하여 以上으로 簡單히 補修工事經緯를 報告하여 그 責을 면하려 한다. 叱正部分의 敎示를 同人諸位에게 要望하고 事故이 竣工을 보게 한 從事者 諸人士에게 感謝를 드린다.